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
7
제63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32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제385회 임시회 개회



03

폐회사



05/07

상임위원회별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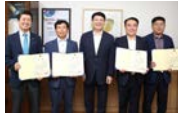
10/11

함께 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거친 바다, 뛰어드는 삶 바다에서 수면으로 올라오면서는 정신이 아득해진다. 그걸 알면서도 푸른 바다로 뛰어드는 해녀의 삶. 그 삶에서 강인한 제주의 힘을 생각한다. 2020년 7월, 제주의 여름. 다시 나아가기 위한 들숨을 쉬어본다.

제11대 제주도의의회 후반기 원구성 본격 맞을려

제 11 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3일 오후 제 384 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는 영위원회 위원 변경·추가 선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선임하면서 제 11 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3 차 본회의 이후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문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 1·이도 1·건입동), 부위원장으로 강철남 의원 (민주당·제주시 연동읍) 이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범 의원 (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이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제 11 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다.

앞서 1 일 후반기 의장단으로 좌남수 의장 (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 과 정민구 부의장 (민주당·제주시 삼도 12 동), 강연호 부의장 (통합당·서귀포시 표선면) 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으로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읍),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민주당·제주시 연동갑),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민주당·제주시 화북동),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민주당·제주시 조천읍), 부공남 교육위원장 (교육의원) 이 뽑혔다.



● 의장단 투표

좌남수 의장, 정민구·강연호 부의장 선출

제3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하반기 의장단 선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1일 오후 2시 제3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제11대 도의회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이 39표를 얻었다. 이 밖에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 2표, 무효 1표, 기권 1표 등이 나왔다.

부의장에는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과 강연호 의원(미래통합당, 표선면)이 각각 선출됐다.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주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늘 깨어있어야 한다.”라며, “도민의 요구에 답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여당 몫 부의장 투표에서 정민구 의원은 43명 중 29표를 얻었다. 조훈배(안덕면) 의원은 3표를, 양영식 의원(연동 갑)은 2표를, 김태석 의원(노형동 갑),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각각 1표씩 얻었다. 무효 2표, 기권 5표 등이 나왔다.

좌남수 의원은 당선 소감을 전하면서 “의장으로서 미래를 내다보는 의회를 만들겠다”라며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찬·연수 예산을 대폭

야당 몫 부의장 투표에는 강연호 의원은 43명 중 33표를 얻었다. 김황국(용담1동·용담2동) 의원이 5표를 얻었고, 무효 3표, 기권 1표 등이 나왔다.

정민구 의원은 부의장 당선 인사에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데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연호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피해가 커져가는 어려운 시기에 부의장에 선출됐다.”라고 말한 후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민구 부의장



△강연호 부의장

● 좌남수 의장 당선인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오늘 저에게 부여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민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노동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갖은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서민과 노동자, 농민 등 약자를 대변하

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니다.

오늘부터 도민의 대의기관 수장으로서 의장직 수행을 부여해주신 것은 지금보다 더 정치적으로 대변하면서 분명한 역할을 해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의장으로서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도민안전의 위협과 경제 침체라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올바른 정책의 선택과 결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던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이 보장될 것인지 경제적 불황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상실감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사투하며 도민들께서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하반기 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만들겠습니다.

도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언제나 도민 편에 있겠습니다. 의회가 먼저 도민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대화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생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장으로서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민의의 전당을 약속합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의원과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을 하겠습니다. 의회 먼저 내부로부터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찬, 예산

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을 향해 제대로된 견제와 균형의 힘을 발휘하려면 의회가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도민들의 요구에 답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함께 한다는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의 공복으로 일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좋은 정책은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갈등과 긴장을 뛰어넘어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살던대로 살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내야 합니다. 상실감과 불안감으로부터 도민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서민경제 회생에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민생안정과 경제회생 위한 특위’부터 만들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일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불편도 감수하며 코로나로부터 집단 감염을 막고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함께 실천하는 도민들 덕분입니다. 도민들께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폐회사

“집행부와 의회는 '공명조' 와 같은 운명공동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을 출범시켰던 제3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원 구성을 위한 3일간의 짧은 회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 양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원구성을 원만하게 마치고, 후반기 의정의 힘찬 출발

을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와 고용, 도민의 삶 등 모든 면에서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희망으로 열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짜내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의 산소호흡기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후반기 제주의정이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당선인사에서 말씀드렸던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그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

불교 경전에 ‘공명조(共命鳥)’라는 새의 일화가 있습니다.

‘공명조(共命鳥)’는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인 새입니다.

두 개의 머리가 아침저녁으로 활동을 달리하다보니 다툼이 생겼고, 결국 한 쪽 머리가 다른 쪽 머리에 독을 먹여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소중히 대해야 할 상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반목과 갈등을 겪으면 결국 함께 공멸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공명조(共命鳥)’와도 같은 공동운명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로지 제주와 도민만을 위해 사심 없이 뚝뚝히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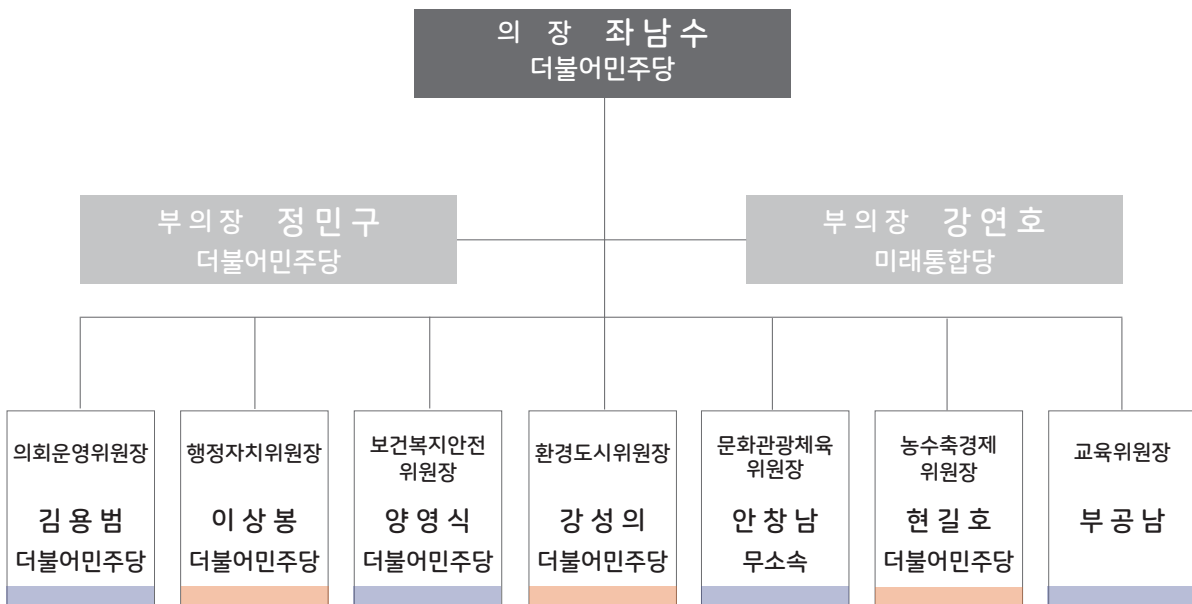
그 길을 앞장서서 걷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현황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회 위원현황

의회 운영	행정자치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
11명 강성의, 김희현, 부공남,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현길호	7명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6명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이승아, 홍명환	7명 강충릉,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6명 김항국, 문경운, 철철, 박호형, 오영희	7명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9명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 가나다 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일하는 의회 7월 공감 소통의 날 열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식과 함께 7월 공감 소통의 날 행사가 7월 6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좌남수 “언제나 도민 편에서 도민에게 힘이 돼드리는 의정을 펼치겠다.”며, “집행부와의 관계는 갈등과 긴장을 뛰어넘어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정이나 의회 모두 도민 이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어떤 의제든 회부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좌 의장은 “1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코로나19특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민생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특위 하나만 갖고는 너무 광범위하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해 상임위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11대 제주도의의회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내대표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포스트코로나(Post-COVID) 시대 제주의 산적한 사회경제 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1일, 신임 원내대표에 지난 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임된 3선 중진의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의석의 76%를 점하고 있는 매머드급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조정을 위해 신설된 총괄부대표에는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재선의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을 선임했다. 도의회 원내 소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을 통해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탠다.

이어 정무부대표에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기획부대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협치부대표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민생부대표에 문경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각 임명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에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을, 을지로위원장에는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선임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에는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맡기로 했다.

신임 김희현 원내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감있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원내대표단의 소통과 정책 조정 등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회가 도정을 제대고 견제하고 실질적인 특별자치를 통해 제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제11대 제주도의의회 후반기 원내대표단 꾸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미래통합당이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내대표단을 구성했다.

원내대표는 전반기에 이어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원내부대표에는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 서홍동·대륜동)이 새롭게 임명됐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오영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정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희 원내대표

미래제주, 제11대 신임 원내대표에 오대익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미래제주 교섭단체는 7월 3일 신임 원내대표에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을 선임했다.

제주도의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투표를 통해 부공남 의

원을 2년 임기의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모두 9명이 투표에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부공남 의원은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뽑혔다. 부위원장에는 김창식 교육의원과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로 오대익 교육의원이 선출됐다.



△오대익 원내대표

예결특위 제3기 신임 위원장 선출 위원장 문종태 의원, 부위원장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7월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선거구), 부위원장에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읍 선거구)을 선출했다.

이에 앞서 제3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문종태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선임되었다.

이번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2020년 7월 3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예결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문종태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려운 이 시기에 도민의 삶을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문종태 예결위원장은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

제주도의의회 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 부위원장 강민숙 의원 선임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는 7월 9일 제38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제11대 후반기 제주도의의회 의원의 법령 및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 권한을 갖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부위원장에는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이 선임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제384회 제3차 본회의에서 12명 위원으로 선임됐는데, 해당 위원으로는 오영희(미래통합당), 부공남(교육의원), 안창남(무소속), 강성의, 김희현, 양영식, 오대익, 이상봉, 이승아, 현길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에 김용범 윤리특별위원장은 “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공정한 업무 수행 및 의회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더욱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운영위원,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정책특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했다.



한편, 윤리특위 위원들은 올해 7월 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제11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본격 돌입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다. 후반기 의장단으로 좌남수 의장(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정민구 부의장(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 강연호 부의장(통합당·서귀포시 표선면)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으로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민주당·제주시 연동갑),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민주당·제주시 화북동),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민주당·제주시 조천읍), 부공남 교육위원장(교육의원)이 뽑혔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은 7월 3일 제주43평화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제11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별 운영방향

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와 생산적인 관계 구축할 것”



김용범 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지워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은 이전보다 더 힘들고 혹독한 시절을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의회의 역할과 헌신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견을 잘 수렴하여 의회가 도와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 직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의 의원



김희현 의원



부공남 의원



안창남 의원



양영식 의원



오대익 의원



오영희 부위원장



이상봉 의원



이승아 의원



현길호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견제와 균형, 구체적 협력할 것”



이상봉 위원장

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전반기에서 조직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7단계 제도개선 등의안 처리 등 굵직한 사안들을 다루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민의 권리확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후반기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라는 큰 틀 안에서 집행부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주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자치분권 시대를 완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로 선도하도록 기획단계부터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과 관련하여서는 도 전체의 정책기능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현안과제 관리 및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4.3희생자 유족의 아픔 치유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정책성과 감사지향을 하고 있는지, 총무과는 공직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갖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보관은 도민 어려움을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사회에 희망을 주는 역할로 전환하도록 역할 정립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후속조치에 대해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최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부위원장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고현수 의원



문종태 의원



이경용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건강 형평성 제고, 보건의료 예산 확대”



양영식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영식 의원입니다. 제주도민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복지와 안전이 기본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 인 것 같습니다.

도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정책 강화를 위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보건의료 예산확대 및 지역격차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복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제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정책 및 사업 환경은 커다란 변화의 맥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과 민관협업 중심의 원스톱 복지 전달체계인 「통합복지하나로」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제주도민이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를 제주도의 자체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등이 탄탄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잘 가동되고, 그 밑바탕으로 관련 계획들이 적절히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고자 자연·사회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의원



김경학 의원



김대진 의원



이승아 의원



홍명환 부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균형과 조화 추구”



강성의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의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제주의 도시·환경·교통분야를 소관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을 대신하는 한 사람의 의원이면서, 동시에 위원회를 이끌어야 하는 위원장으로써,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답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러 의원님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물론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도민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도민과 함께 하는 2년간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균형과 조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도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현안 문제 해결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교통 문제, 제2공항 건설, 자연환경 보전, 폐기물 처리, 수자원 관리, 상하수도 확충 등은 물론 이를 토대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비전 제시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엄중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고민과 정책 제시로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충룡 의원



고용호 의원



김희현 의원



송창권 의원



양병우 의원



조훈배 부위원장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새로운 패러다임 절실, 대안 제시 노력”



안창남 위원장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창남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뢰와 성원으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문화, 관광, 체육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초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관광, 체육행사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아 문화, 관광, 체육분야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한 만큼, 앞으로 2년간의 의정활동에 있어 의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현안해결과 대안제시 등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항국 의원



문경운 의원



박원철 의원



박호형 의원



오명희 부위원장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의 심장, 1차산업·경제·에너지 역량 강화”



현길호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장 현길호입니다.
부족한 저를 제주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1차 산업과 경제 및 에너지 등 미래산업 업무를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2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과 위원회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우리 위원회에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오셔서 남다른 열정을 발휘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여주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제주의 현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앞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돕겠다는 말씀과 함께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균 의원



고태순 의원



김경미 의원



김용범 의원



송영훈 의원



임정은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합리적 비판, 전문적 견제로 제주 교육 견인”



부공남 위원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부공남 의원입니다.
저에게 제주교육을 이끄는 한 축인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 의무를 부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 집행부를 향한 합리적인 비판, 전문적인 견제,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서 제주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견인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확실히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시백 의원



강연호 의원



김장영 의원



김창식 부위원장



김태석 의원



오대익 의원



정민구 의원



한영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효율적 예산 집행, 민생경제 활성화”



문종태 위원장

재정절벽과 코로나 사태가 겹친 이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맡겨 주심에 두 어깨가 무겁지만 합니다. 하지만 협치와 소통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한데 모아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3기 예결위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중점으로 예결위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대 계상된 예산 등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 도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민들의 땀으로 일군 세금이 최대한 도민에게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과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느새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유지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니 계속 지켜봐주시고 따끔한 질책과 조언 또한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강성균 의원



강철남 부위원장



강충룡 의원



고용호 의원



김경학 의원



김대진 의원



김창식 의원



김태석 의원



김황국 의원



박원철 의원



이승아 의원



임정은 의원

생생 의정활동

포스트 코로나, 제주의 생존전략은?

환경도시위·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의원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6월 29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강연에서는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표준' 시대 도래와 한국사회의 전환'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고봉현 제주연구원 상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제주지역 산업·경제를 중심으로)' 주제로 연단에 섰다.

종합토론에는 좌장인 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고선영 제주관광공사 조사연구센터장, 김창학 전 제주국제대학교 핀테크경영학과 교수, 서태중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신후식 도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원, 한영수 도 미래전략과장이 참여했다.

박원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에서 해야 할 노력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초·중·고등학교 등교개학 방역 현황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8일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도내 등교개학에 따른 교육활동 운영과 방역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아라초와 노형중을 방문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지 않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부터 전 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대학교의 현안을 청취하기 위하여 방문하게 된 것이다.

도내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8개교의 과대학교의 경우 전체학생 3분의 2는 등교수업

을 진행하고 나머지 학생은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게 하는 격주 등교수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정의 어려움은 물론 학교 내에서도 방역지도 및 학습 지원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별 방역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개인방역 지침 이행 등을 지도하고 있지만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이행 독려에 어려움이 있으며, 격주 등교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생활지도 어려움 및 학업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마련 청년정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5일 오후 4시 30분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10회 청년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정담회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청년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주지역의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청년당사자들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이민경 제주 알터 대표, 마승환 에드마이너 대표, 이금재 일로와제주 대표, 이재영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고동탁 청년봉사모임 영원회 회장, 신호주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교육학습센터 연구원, 강민경 제4기 청년원탁회의 운

영지원단 등 2016년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했던 청년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 청년정책담당관의 양태녕 청년정책팀장과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했다.

청년정담회를 주관한 김항국 의원은 "청년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이 가능해졌고, 이를 반영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부채 경감, 건강증진 등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것이며, "이후에도 도의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8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문경운,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문경운,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6월 23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우수의원 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한 우수 의원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동 시상식은 매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 19 감염방지를 위해 지역별 시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전수하였다.

제주4·3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위한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희현 위원, 김장영 위원, 문종태 위원은 6월 29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제주4·3특별법을 다시 개정하여 발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15일 도내 각 기관, 정당, 4·3유족회,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124개 단체가 함께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에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에 대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주지역 오영훈, 위성곤, 송재호 국회의원, 4·3유족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토론회에는 4·3 유족회, 노근리 유족회, 각 기관 단체를 포함하여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제주도민들 역시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도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재승 범개정특위위원장이 “제주4·3특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개정 법안의 조문들을 살펴보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근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 서상범(사)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 이상희 변호사, 이상언 4·3유족회 감사, 홍수정 4·9통일평화재단 조사실장,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여하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되기 위한 다양한 전략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4·3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서 도의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연구회와 공동세미나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의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6월 22일부터 이틀동안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연구회(회장 허소영 의원)와 함께 「자치분권 현안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하여 “21대 국회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로 특강을 실시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김순은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제 대부분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의 신속처리를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인 정민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도록 강원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앞으로도 전



문가 초청 특강, 타 지방의회와의 공동세미나, 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의회 간의 연대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주도 노조관계자와 면담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7월 1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3개 노조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격려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경제 동향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현안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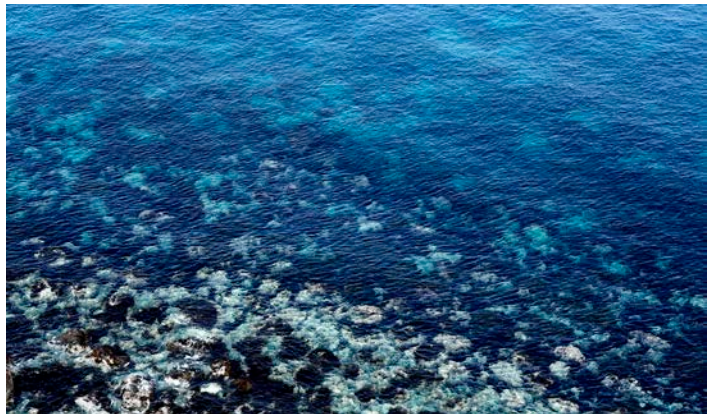
급격히 하강하고 있는 제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①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특히 내국인의 해외 관광수요(2019년 내국인 출국자수 2,872만명)를 제주관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고, ②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수·관광확대 활성화 대책(8대 할인 소비쿠폰 제공 : 1,684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6월 29일, 코로나19 발생과 건설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제주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코로나19 이후 제주경제 동향과 활성화 방안」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 여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서비스업생산, 도소매판매액 등이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1/4분기 중 최저 성장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공공업생산, 건설수주액, 수입액, 고용률 하락 속도(실업률 상승 속도), 가계의 재무건전성(부채 급증) 등 주요 경제지표도 바닥권에서 벗어 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코로나19 위기 중장기화 될 가능성, 미중갈등 격화로 제2의 사드사태 반복 위험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유입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을 감안하면 제주경제의 조기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내국인관광객 중심의 비즈니스모델 비중을 높여 나갈 필요성(2020년 5월까지, 내국인 관광객 -35.4%, 외국인 관광객 -71.2%, 전년동기비)이 있다는 것이다.

시로 읽는 제주



어쩌다 맑음

문순자

바다에 반쯤 잠겼다가 썰물 녀 드러나는
 애월 돌염전에 기대 사는 갯질경 같이
 한사코 바다에 기대
 서성이는 생이 있다

그렇게 아흔아홉 세밑 겨우 넘겼는데
 간밤에 육십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기 젖 물리란다며 앞가슴 풀어낸다

사나흘은 뜬 눈으로, 사나흘은 잠에 취해
 꿈속에서도 꿈을 꾸는 어머니 저 섬망증
 오늘은 어쩌다 맑음
 요양원 일기 예보

어떤 기억은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영혼으로 떠돈다. 그 기억은 꿈으로 환생하기도 하고 어느 날 어떤 곳에서 불쑥 나타나 뒷목을 서늘하게도 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음으로 가득하다.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틀데면 '애월 돌염전에 기대 사는 갯질경'에게 눈이 머무는 것은 그 안에 '서성이는 생'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한낱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다. 경계의 안쪽과 바깥 쪽 사이에서 갈광질광 거릴 뿐이다. 그러다 놓쳐버린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진정한 마음의 염전밭을.

그렇게 놓친 기억들은 꿈으로 환생을 시도한다. '육십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불쑥 찾아와 '앞가슴 풀어'낼 때 과거는 단지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면면히 살아 흐르는 핏줄처럼 영혼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끌어들이는지를 알게 된다. '아흔아홉'이면 흔한 장수를 하신 것이 아니다. 백수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 아쉬움의 뒤안길로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버린 환생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온전히 '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에게로 수없이 거슬러 올라가 육체와 정신을 나눠가진 어떤 혈육의 끈적함이 어머니와 나에게도 묻어 있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어머니는 '꿈속에서도 꿈을 꾸'고 있다. 섬망증은 뇌 질환으로 인해 언어와 시공간 기능 등 인지능력 전반에 장애를 보이며, 환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질병이다. 불면이 동반되기도 해서 '사나흘은 뜬 눈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꿈이 있다. 정신분석이론으로 유명한 프로이드는 꿈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를 밝히려 했다. 억압된 사고와 감정, 기억이 꿈의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과거가 현재이면서 현재가 과거이기도 미래이기도 한 세상에 살고 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때로 초월하면서 그렇게 '오늘은 어쩌다 맑음'으로 환하게 웃기도 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긴 잠에서 긴 꿈에서 깨어날 때 하늘이 더 과량게 웃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글 김효선 / 시인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기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14일	정례회 2회/41일, 임시회 8회/73일
3월	제380회 임시회	3.17.(화) ~3.24.(화) (8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81회 임시회	4.16.(목) ~4.29.(수) (10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82회 임시회	5.14.(목) ~5.21.(목) (8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6.15.(월) ~6.25.(목) (11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84회 임시회	7. 1.(수) ~7. 3.(금) (3일)	· 후반기 원구성
	제385회 임시회	7. 16.(목) ~7. 28.(화) (13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8월			
9월	제386회 임시회	9.16.(수) ~9.22.(화) (7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87회 임시회	10.13.(화) ~10.29.(목) (17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388회 제2차 정례회	11.16.(월) ~12.15.(화) (30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1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389회 임시회	12.17.(목) ~12.23.(수) (7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청탁금지법 Q & A



Q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병역판정검사장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1호는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가 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였고, 자녀 A는 아버지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 A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군의관 C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여름철 안전 뜨겁게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실시됐다. 아직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내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은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있다. 등교뿐만 아니라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한동안 외출을 삼가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캠핑, 물놀이 등 야외활동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들떠 있을 때,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우선 햇볕이 강한 날 장시간 무더운 날씨에 노출될 경우 온열질환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너무 오랜 시간 바깥에 있지 말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주변의 어린

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등은 사전에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무더위로 인해 상온에 보관한 음식이 상하면서 식중독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은 익혀서 먹고 유통기한 내의 음식이라도 음식물 섭취 및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하며 물은 끓여 마시며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등의 개인위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설사·복통·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여름철 물놀이를 나서는 경우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수영가능 지역'이라도 자신의 허리보다 깊은 물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사나 음주 직후 물놀이 활동은 위험하기 때문에 입수하지 않도록 한다. 끝으로, 야외활동과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운전할 때에는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말아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추어야 하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훨씬 무덥고 폭염과 열대야도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답답함과 무더위를 피해 야외 활동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안전의식도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이다. 이럴 때 일수록 안전에 유의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

김수민 주무관 / 아라동주민센터

'나는 과연 청렴할까?'



공직사회의 우리는 청렴이라는 단어 속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지난해 공직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청렴이라는 단어를 접한 이후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청렴'은 내 주위에 만연하다. 읍사무소 입구는 물론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에도, 심지어 업무를 보는 책상위에도 청렴과 관련된 무언가로 가득 차있다. 이렇듯 넘쳐나는 청렴 속에서 '나는 과연 청렴할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겨울, 전지훈련 구장을 빌리기 위해 한 호텔 직원이 찾아왔다. 그 직원의 손에는 에너지음료 상자가 들려있었는데, 그 음료는 지난 며칠간의 친절한 상담

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 했다. 한사코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음료를 전하는 호텔 직원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그 음료상자를 받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때, 내 손에 들려있는 음료 상자에 대해 동료(선배) 직원이 물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민원인이 감사하다며 준 것이라고 대답했고, 그 대답을 들은 동료 직원은 당장 그 상자를 호텔 직원에게 가져가 돌려주었다.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동료 직원의 질문에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나는 "아직 잘 몰라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는 물품은 당연히 받아선 안 된다. 공직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수많은 모범답안에 있던 내용이었으며,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수도 없이 접한 내용이었다.

항상 보고 듣고 하는 청렴이었지만 막상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의 업무와 청렴을 연관시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청렴을 알고 있으나, 청렴하진 않은 공직자였다. 그날 이후, 그저 청렴함을 아는 것이 아닌 청렴함과 나의 업무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경각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TV에서만 보는 금품·향응수수 등과 같이 큰 업무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업무에서 청렴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청렴만큼 청렴에 대해 고민을 가져본다면, 청렴한 공무원 나아가 청렴한 제주사회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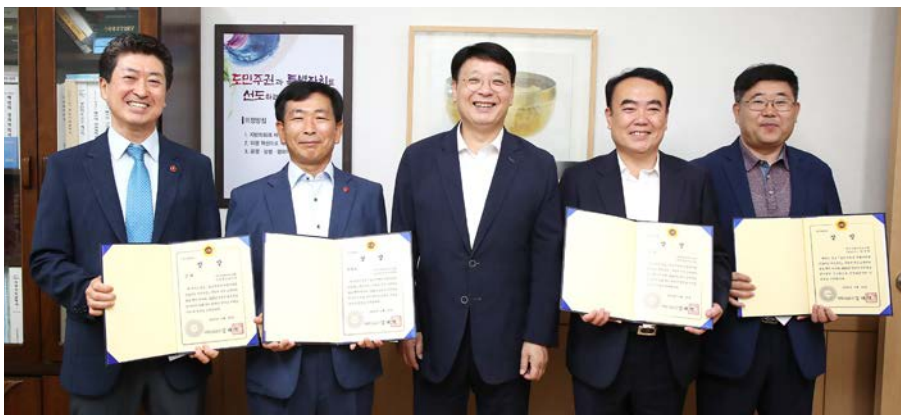
신철민 주무관 / 대정읍사무소

포토뉴스



여름, 제주 붉게 빛나는 태양을 향해 활짝 얼굴을 들어 올린 해바라기(사진 위 왼쪽), 초가집 마당과 들길을 채우는 산수국(사진 아래 오른쪽), 그리고 숲의 정령과 함께하는 운문산 반딧불이(사진 위 오른쪽). 완전한 여름이다. / 미디어팀 김명선

도의회, 2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는 2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최우수에 보건복지 안전전문위원, 우수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려에 민원홍보담당관을 각각 선정했다. 이어 올 처음 시행한 상반기 중 최다 기고 실적을 거둔 기고양에는 보건6급 강성택 주무관이 선정됐다.

제주도의회의는 도의회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제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평가는 방송매체 홍보 자료 제출, 언론 보도실적, 언론 기고,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등의 평가항목 별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부여로 순위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최다 기고직원을 기고 왕으로 선정, 시상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홍보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테현 민원홍보담당관은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의정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 11 대 전반기 의정자문위 활동보고회 개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활동보고회가 6월 25일 오전 10시 이철준 의정자문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의 활동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의 임기동안의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 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 등이 진행되었다.

이철준 의정자문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2년간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정자문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정자문위원들을 통해 전달된 현장의 목소리들이 의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

에서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것이 송구하고 아쉽다.”는 소회도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정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의 활동보고회는 전체위원회 회의로 진행하여야 하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처리두기를 실천하고자 부득이하게 분과위원장 회의로 축소 운영되었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2018년 9월, 7개 분과위원회 54명으로 구성되어, 도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제안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자문활동을 펼쳐왔다.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위한 「정책연구」 제3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연구실은 6월 30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구해 온 정책연구실의 연구 성과물들을 한데 모은 「정책연구」 제3호를 발간했다.

지난 2019년 8월 발간된 「정책연구」 제2호 이어 유엔(UN)이 주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으로 제주의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대한 기획연구와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한 10편의 연구자료와 세미나 발표 자료를 종합하여 발간 한 것이다.

정책연구실은 이번에 발간된 「정책연구」 제3호를 의회구성원과 유관기관에 배

포하여 향후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발간취지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 제3호에는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 방안’, ‘부동산 경기침체가 제주 경제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퇴비부속도 감사 의무화에 따른 농가 지원 대책 강구해야’,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 정책 방안’ 등 10편의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안과 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입법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오니,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5. 1. (수) - 7. 31. (금)

공모분야 4개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 및 도정 발전 방안
-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 방안
-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응모자격 누구나

응모방법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받지 유요)

- 전자우편 : hee0116@kma.kr
- 등기우편 : 우)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3(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담당자
- 문의전화 : TEL. (064)741-2273 / FAX. (064)741-2289

작성요령 공모 신청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아이디어 내용 (개선방안 및 대책),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 1부
※ 신청서 서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입법담당> 고시공고) 다운로드
※ 전자우편 제출 시, 응모자 서명 또는 날인된 공모 신청서 스텐파일 제출

심사기준 5개 항목 100점 만점(항목별 각 20점)
① 실현가능성 ② 창의성 ③ 효율(효과성) ④ 적용범위 ⑤ 계속성

심사일표 2020. 8. 31. (월)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 개별 통보

시상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및 상금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4명)
20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 시상방법은 응모작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실(064-741-2273)

제주 4·3 특별법 개정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7월 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오영훈, 위성곤,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 6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 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 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방향을 설명했다.

토론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4·3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 김성도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교사, 양동윤 제주 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법률(초안)은 제주4·3 희생자유족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7개의 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세부 의견을 반영해 21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토대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됐다.